

경북행복 BRIEF

제19호 2018. 2. 1.

법 인 명 칭 (재)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재)경북행복재단 편창범
주 소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T E L 054-710-8814
홈 페이지 www.ghf.or.kr
연 구 책 임 김동화(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공 동 연 구 김미옥(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I. 들어가며

- 최근 장애인복지계에서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장애인자립생활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지니는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 사회서비스임.
- 2007년 4월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사회참여,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포함하게 됨.
- 활동지원제도가 확대 됨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의 급여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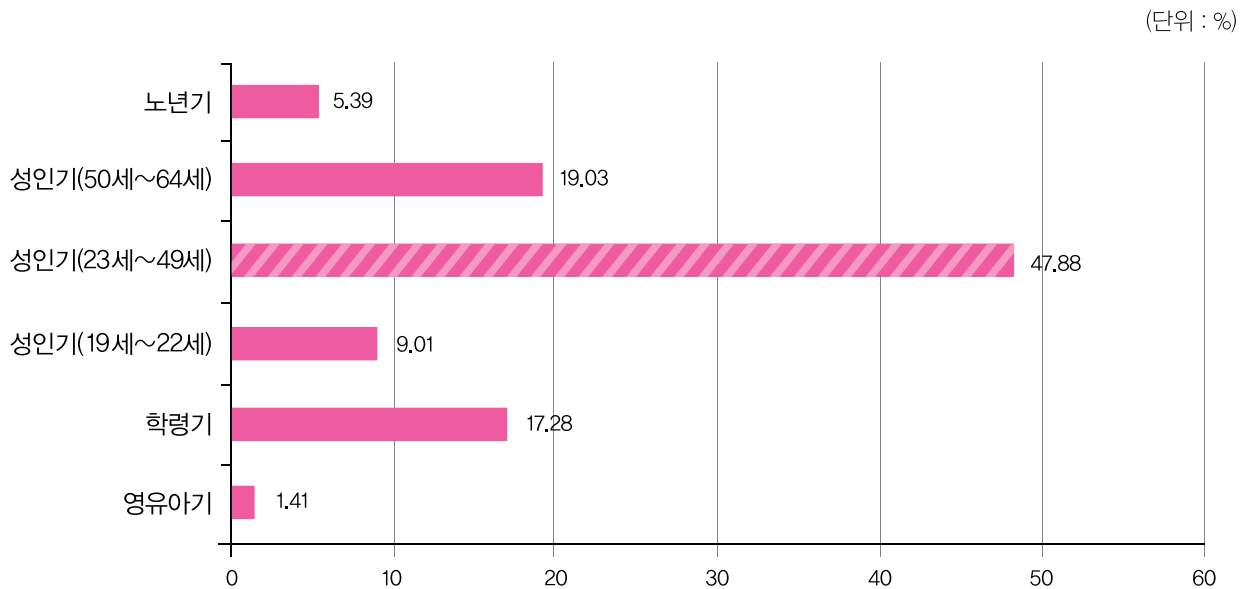
- 경북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살펴보면, '주로 집에 있는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에 가는 경우(20.8%)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9.7%)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말 및 공휴일에 발달장애인 가족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김동화 외, 2013), 경북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간활동급여 모형설계' 연구를 실시하면서, 2016년 5월에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함.
- 2016년 경북 발달장애인은 전국 3위(16,062명)로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고, 특히 경북 발달장애인은 20·30대(38%, 6천108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김동화 외, 2017), 학령기를 끝내고 성인기로 접어드는 발달장애인이 많은 실정임.
- 주간활동서비스 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경상북도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욕구·필요성, 전국 주간활동서비스 운영기관이 겪는 어려움 등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발달장애인과 주간활동시범사업 현황

1. 발달장애인 및 활동지원제도 현황

(1) 경북 발달장애인 현황¹⁾

- 발달장애인은 17개 시·도 중 경기도 20.9%(1위), 서울시 13.9%(2위), 경북 7.36%(3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북 발달장애인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성인기, 학령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경북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 경상북도 시·군별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학령기, 성인기(19세~49세), 군 지역은 성인기(50세~64세), 노년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북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이나, 경북 발달장애인은 학령기와 성인기 비율이 높아 여타 장애인의 연령 추세와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발달장애인은 10대~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경북주민등록인구는 40·50대를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경북 장애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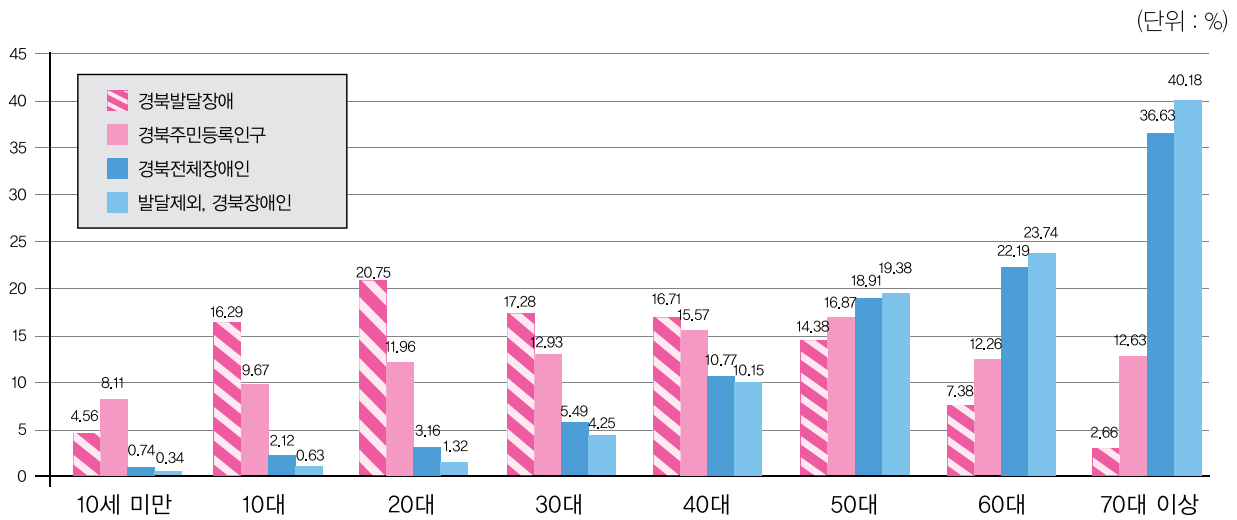
1) 김동화, 유영준, 김기룡, 조민제(2017).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상북도, 경북행복재단, 자료 참조

[표 1] 경북 주민등록인구 및 장애인구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계	추세선
경북주민 등록인구	223,249 (8.11)	266,021 (9.67)	329,117 (11.96)	355,776 (12.93)	428,502 (15.57)	464,122 (16.87)	337,438 (12.26)	347,524 (12.63)	2,751,749 (100.0)	
경북 전체 장애인	1,256 (0.74)	3,589 (2.12)	5,367 (3.16)	9,309 (5.49)	18,265 (10.77)	32,073 (18.91)	37,646 (22.19)	62,138 (36.63)	169,643 (100.0)	
경북발달 장애인	732 (4.56)	2,616 (16.29)	3,333 (20.75)	2,775 (17.28)	2,684 (16.71)	2,310 (14.38)	1,185 (7.38)	427 (2.66)	16,062 (100.0)	
경북 장애인 (발달제외)	524 (0.34)	973 (0.63)	2,034 (1.32)	6,534 (4.25)	15,581 (10.15)	29,763 (19.38)	36,461 (23.74)	61,711 (40.18)	153,581 (100.0)	

자료 :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4분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그림 2] 경북 발달장애·주민등록인구·장애인 연령별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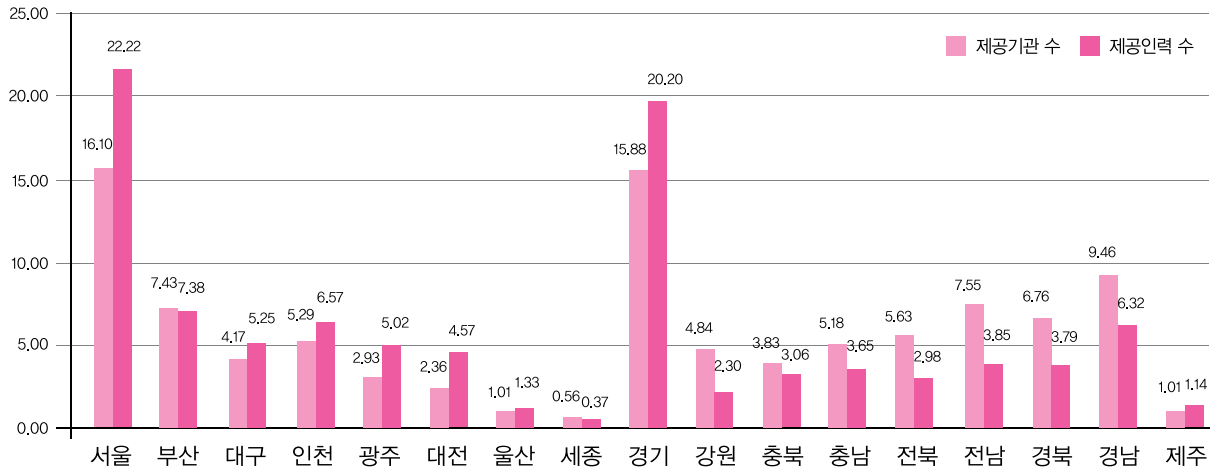
(2) 활동지원제도 현황

■ 경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²⁾은 60개소(6위, 6.7%)로 전국 평균 52.2개소 보다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143개소), 경기(141개소), 경남(84개소), 전북(67개소), 부산(66개소), 경북(6위) 순이며, 경상북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활센터, 부모회, 지체장애인협회, 노인복지센터, 자립생활센터, 노인복지센터인 것으로 나타남.

2) 제공기관 :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재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경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³⁾은 전국 10위(2,580명, 3.79%)로 전국 평균 4,005개소에 절반 수준임. 서울(15,129명), 경기(13,751명), 부산(5,022명), 인천(4,475명), 경남(4,302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이용자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인천, 대구 등 경북은 9위(2,633명)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2015년 기준)

2. 주간활동 시범사업 현황⁴⁾

(1) 사업개요

① 목적

-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② 주간활동급여 대상자

- 성인 및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하는 자 (2017. 8. 1. 변경)

3)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활동지원 인력 수

4) 보건복지부(2017). 주간활동 사업안내(안) 참조

3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학습형	기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쓰기, 문장이해, 독서 등 문해 교육 • 영수증 이해, 시간 이해, 계산기 사용, 가격비교 등 생활수학 교육
	정보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정보검색, 온라인 구매 등 IT 교육 • 스마트 기기 사용법, 정보이용 방법 등 스마트폰 교육
	자립적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시설,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등 지역사회 이해 교육 • 안전, 위급상황 구조요청, 의식주 관리, 위생 등 일상생활 교육 • 기타 의사소통, 자기결정 등 자립향상 지원 교육
취미형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정원 꾸미기, 화초 가꾸기 등 원예 활동 • 기타 식물 기르기, 수확하고 관리하기 등 제반 식물 관리 활동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관람,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중창, 난타 등 음악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공예 등 미술활동 • 흙으로 생각 표현하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등 도예활동 •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하기 등 사진관련 활동 •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관람이나 창작 활동
	동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영화관람, 미술관·박물관 관람 등 문화관람 동호회 • 기타 레포츠, 댄스, 여행, 뷰티 등 각종 모임 활동
체육형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 수영, 댄스, 등산, 에어로빅, 요가, 줄넘기, 풋살, 배드민턴, 헬스, 볼링, 탁구, 농구, 등산, 기타 건강 증진 활동
	특수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 수영, 재활 헬스, 수중재활(스트레칭, 수중마사지, 지압 감각회복 등), 기타 기능 향상 활동
직업형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이해 및 동기, 직업적성 및 흥미, 직업정보 및 구직준비, 사업체 견학, 작업활동/단기체험, 기타 직업 관련 제반 활동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직무 OT, 체험활동(제과제빵, 바리스타, 사서도우미, 제조, 임가공, 패스트푸드 점원, 세차, 요양보호사 보조원 등), 기타 각종 직업 체험 활동
친목 사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탐방 도보여행 등 외부활동 중심 • 음악/영화감상 및 나눔, 그림그리기 및 나눔 등 실내활동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폐성 장애 • 사회성 증진

4 주간활동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하 주간활동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주간활동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주간활동 기관은 프로그램의 30% 이상 외부연계*
 - * 외부연계는 타 기관(사업자등록 번호, 고유번호등록 번호) 또는 외부활동(제공기관 주소지 이외의 장소)을 기준으로 함
- 법령(시행규칙 별표 1) 개정 전까지는 지정을 위한 시설기준에 대하여 본 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5 주간활동 제공인력

- 수급자에게 주간활동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의 기준은 활동보조인이 아닌 별도기준 적용
- 법령 개정 전까지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본 사업안내의 인력기준을 적용
-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주간활동제공인력 1명 이상
 - ※ 201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의 인력기준 중 전담관리인력 기준만 준용하고, 주간 활동제공인력 기준을 추가함
- 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 보유를 자격으로 인정하여 우선 선정
 - *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직업재활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체육전공자 등
- 취미형, 직업형 등의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 활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활동보조교육 이수로 자격 인정

(2) 시범사업 현황

- 1차 시범사업(2016년 5월~9월) 지역의 활동지원수급자는 총 6,795명으로 전국 활동지원수급자(69,223명) 중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동지원(활동보조)기관은 62개소로 전국 활동지원기관(735개소)의 8.4%로 나타남. 시범사업 지역의 발달장애수급자는 총 3,046명으로 같은 지역 활동지원수급자의 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강정배 외, 2016).
- 2차 시범사업(2017년 4월~10월)을 살펴보면, 광역 16개, 기초 20개 지역, 제공기관 3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자립생활센터,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단체(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부모회),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연구방법 및 조사결과

-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전국 및 경북 발달장애 현황, 주간활동 시범사업 개요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보호자의 스트레스, 서비스 미이용자 낮 활동 현황 및 스트레스, 주간활동서비스 기관 실태(인력, 사업, 재정, 운영 등)를 파악하고자 함.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보호자 총 250명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200명(80%)을 대상으로 분석 • 기관용은 전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차 시범사업 39개 기관 중 31개 기관에만 설문을 발송하였고, 응답한 27개(87%) 설문지를 분석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10. 31 ~ 11. 10

- 셋째,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주간활동 이용 전·후의 변화,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실태 및 어려움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구분	내용
연구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입장과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의 주간활동실태를 대변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서비스 이용 보호자를 각 기관에 요청함. 이에 종사자 12명, 보호자 14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
조사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 각 그룹별로 3시간~3시간 30분 정도 소요. 연구자가 그룹으로 모인 장소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해 동의를 받아,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한 후 전사된 녹취록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태 양적조사 결과

(1)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① 일반적 특성

- 장애인은 20대(평균 20.47세)로, 발달장애가 94.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이전부터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자는 주로 어머니이고, 50대로 대졸+대졸 이상이 58%로 높게 나타났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② 서비스 이용현황

- 현재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취미형과 3인 그룹형태에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평균4.31/5점 만점)하고 있으며, 인력, 이동지원, 주간활동시간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장애인은 주로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후 긍정적 변화 여부에서는 '모두'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변화내용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체험 및 문화생활 향유', '이용자의 성격이 밝아짐', '스스로 하는 일들이 생김' 등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하루 평균 2~3회 정도 도전적 행동을 보이며, 행동 강도는 '중간 정도' 수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전·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평균1.91→1.55)으로 나타남.

- 주간활동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8%, 앞으로의 주간활동서비스 필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가 92.7%, 그렇다가 7.3%로 나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제공(이용)시간 확대', '담당인력 전문성 향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광역단위(경상북도)에서 주간활동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할 정책으로는 '제공(이용)시간 확대', '서비스 제공 장소의 시설·설비 확충' 등인 것으로 나타남.

(2) 주간활동서비스 미이용자

① 일반적 특성

- 장애인은 10대로, 장애등급 1등급이며, 활동지원제도는 이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② 장애인 낮 활동 및 도전적 행동

-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낮 활동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며, 하루 평균 2~4회 정도 도전적 행동을 보이고, 행동 강도는 '중간 정도' 수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도전적 행동으로는 공격적·부정적 행동(꼬집기, 때리기, 던지기, 머리당기기, 물기 등), 소리지르기, 배회하기, 자해 등으로 나타남.

③ 보호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것(평균 2.01/3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구체적 스트레스 내용으로는 장애자녀, 외부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은 것(96.8%)으로 나타났고,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게 응답(96.9%)함. 주간활동서비스가 도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평균 4.65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기대하는 내용으로는 우리 가족과 장애자녀에 대한 도움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① 기관 일반적 특성

-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은 30대 여성으로 대학교 졸업, 사회복지 전공이 높게 나타남. 현 기관 평균 근무경력은 2년 9개월, 장애인분야 총 근무경력은 평균 3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② 대상자

- 주간활동급여 이용자로는 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많고, 18~29세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는 주5일, 주3일이 많았고, 주5일은 전일반과 시간제, 주3일에서는 반일반 이용이 높게 나타남.
- 주간활동급여 이용자 중 급여를 중단한 경험은 절반 정도가 되며, 주된 사유로는 다른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더 시급해서가 높게 나타남.

③ 인력

- 전담관리 인력은 평균 1.11명, 제공인력은 평균 8.56명이 가장 많았고, 월급제로 채용된 경우가 절반 정도를 상회하며, 월급제 채용 인력은 중앙값으로 3명 수준으로 나타남.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대략 총 6개~8개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④ 사업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외부연계 협력형 프로그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08개소이고, 협력기관 유형으로는 체육형 프로그램 제공기관과 취미형 프로그램 제공학원 이용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도 및 지침 상 가장 큰 어려움 또는 문제점으로는 '이용자의 주간활동급여 시간 부족', '주간활동제공인력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선점을 살펴보면, '주간활동 급여 시간의 확대'가 2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간활동급여 수가 상향조정'(20.5%), '사업비(75% 이상)를 구성함에 있어서 현재 인건비(70%)와 프로그램경비(30%)의 비율을 유연하게 변경'(17.9%)이 높게 나타남.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태 질적조사 결과

-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전의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변화,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실태 및 어려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FGI 조사 결과 요약

구분	하위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인 · 활동보조인의 역량에 좌지우지 되는 발달장애인의 삶 · 복지관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발달장애인 · 경증 장애인 이용자 중심이 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후, 발달장애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해/도전적 행동은 줄고, 밝은 표정 · 자신감 · 자기표현 향상 · 사회성이 향상되고 행복해 함 · 이용자들 사이에 교감과 유대감이 생김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실태, 어려움 및 문제점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 · 서비스이용가능 시간이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시간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의 부담 · 충분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가 사업의 승패라고 봄 · 하루 8시간이 아닌, 8시간 30분~9시까지 개인별 변경 필요 · 주간활동서비스에 활동보조시간을 다 쏟아 붓고 있음
	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와 주간활동서비스 수가의 차별적 운영 필요 · 서비스 단가 향상 필요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움 · 주간활동제공인력에서의 급여 메리트가 전혀 없음 · 급여 역전 현상으로 월급제 운영 발생 · 남자인력이 부족 · 제공인력 경력 인정 및 처우 반영이 필요함 · 대체할 인력이 없어, 종사자의 식사시간조차 확보가 어려움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 이용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기관 여력 부족으로 확대는 어려움 · 인력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이 혜택 받기는 어려움 · 주간활동서비스에서의 (최)중증장애인 참여에 대한 부담감 · 외부 활동 시 본인 차로 혼자 발달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해야 하는 부담 · 픽업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송영 서비스를 해야 함 · 프로그램 및 송영 서비스 시 최소 종사자 2명 필요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맞는 현장 종사자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이해 및 실천기술, 위급상황 대처 등에 대한 보수교육 필요 · 도전적 행동, 성 등에 대한 대처행동 교육 등이 필요 ·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현장 실무자에 의한 사례 중심 교육을 요구 · 종사자에 대한 현장 지원 매뉴얼, 교육 필요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의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 인식이 변화되는 지역사회 · 외부 연계기관에 대한 발달장애 이해 교육 지원 필요 · 발달장애 부모들 안에서도 중증 발달장애인과 함께하길 꺼려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에 대한 우려 · 운영의 어려움을 다 떠맡고 있는 현장 · 처음 시작하는 기관일수록, 외부 강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큼 · 주방공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주간활동 지침 변경 필요 · 지침 상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장 · 모니터링 하면서 운영의 질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현장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의 중요성
	보호자의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

IV. 제언



[그림 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① 주간활동 참여 중증장애인 기준의 현실화

■ 중증장애인은 현재 1인당 1명의 전담 활동보조인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그러나 그룹형 프로그램에서도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그룹형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향후 별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지금보다 낮춰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②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형태 운영

■ 공식적 서비스전달체계를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던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에게 소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첫째, 기존처럼 정해진 그룹만이 아니라 소수의 2~3인의 그룹형태 다양화를 통해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인력 비율을 높이고, 개별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정도 및 강도 등은 매우 다양함. 따라서 위험사정(risk assessment) 도구 등을 활용하여, 그 정도 및 강도에 따라 참여유무를 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③ 대상자의 효과적인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다변화

-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부모회 또는 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같은 장애인부모 단체와 발달장애 관련 단체들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주간활동 급여

①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활동지원 제도 급여량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비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와 같은 추가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② 발달재활서비스와의 통합사용 제한적 허용

- 현재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바우처 간 통합조정권이 주어져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과 맞물려 향후 바우처 간의 칸막이를 일정부분 조율할 수 있다면 일차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급여 간의 칸막이를 일정부분 허물어서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토대로 두 제도 간의 통합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③ 주말서비스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형이 아닌 그룹형이기 때문에 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본 서비스의 목적이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 있는 하루에 반드시 주말은 포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간활동기관들이 좀 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부 협력기관을 포섭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④ 외부활동 프로그램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지침 상 주간활동기관은 프로그램의 30% 이상만 외부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지만, 본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주간활동서비스의 원래 취지가 주간활동기관 내부가 아닌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 기관들을 비장애인처럼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간활동기관의 경우 더욱 외부 협력기관과 적극적인 프로그램 연계활동을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3) 주간활동서비스 재정

① 주간활동서비스 수가 개선

- 기존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를 제외한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와 같은 기존의 활동보조인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직업재활사, 특수체육전공자 등과 같은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 보다 전문성 있는 제공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지만, 현실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보다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주간활동급여수가 조정이 필요함.

②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융통적 사용 허용

- 현재 주간활동기관은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사업비 즉, 제공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25% 이하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외부협력 기관의 경우, 주간활동 제공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가의 100%가 모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서비스 수가로는 제공인력의 인건비와 관련 제 수당을 충당하기에도 매우 버거운 상황임. 이에, 일차적으로 서비스 단가를 인상해야 하며, 동시에 주간활동기관에 운영상의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음.

(4) 주간활동서비스 전달체계

① 주간활동 제공인력의 발달장애 감수성 강화

-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무리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일지라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이 없다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소원해질 수밖에 없음.
- 특히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처음 직면하는 주간활동제공인력의 경우 더욱 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주간활동기관은 외부 협력기관과 MOU 등과 같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발달장애인 이해교육 수료를 기본 전제로 협력체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② 응급상황대처 등 위험관리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 체계 마련

-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향하는 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큼. 이에 주간활동 서비스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량과 함께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필요함.

-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학습,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긴급개입전략 등에 대한 교육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어, 이 기관들의 교육에 참여하거나, 이들 기관과 MOU 등을 체결하여 강사를 파견, 경북지역 주간활동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 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정기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③ 지역적 상황에 맞는 주간활동기관 운영방안 및 지원 모색

- 경상북도의 경우 군 단위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향후 주간활동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외부프로그램 연계 30% 충족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음.
-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간활동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스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과 농촌지역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활성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타 지역 또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사회 기관 활용(원활한 외부연계 활동)을 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하는 제공인력기관에 이동서비스 지원적 측면에서 교통수단(예 : 스타렉스 등) 제공 및 일정금액의 유류비 지원이 제공 될 필요가 있음.

④ 주간활동서비스 운영매뉴얼 마련

- 향후 주간활동서비스가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상세한 운영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강정배, 유경민, 송기호(2016).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김동화, 손창균, 강민희(2013). 제1차 경상북도 장애인 패널조사(2013년)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유영준, 김기룡, 조민제(2017).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상북도, 경북행복재단.

보건복지부(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2016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17). 주간활동 사업안내(안).

※ 본 브리프는 경북행복재단에서 연구된 '김동화 외(201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편집위원 류승완, 김동화, 정상기.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